

무주공산의 빈달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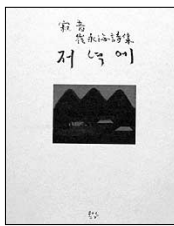
가 비가 오는가/ 바람이 부는가/ '저문날의 목판화' 일부

산사의 고요함을 나타내는데 시만큼 적절한 표현수단이 있을까. 경북 봉화에 위치한 '일소암(一笑庵)'에 기거하고 있는 시인 적은 스님이 산사에서 느낀 감상을 담은 시집 <저녁에>를 펴냈다. 직접 붓으로 쓴 시 30여 편에 산동여 씨의 수록화가 더해졌다.

스님은 "가지가 휘도록 조롱조롱 열린 감"을 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일소암에서 "집 뒤 산자락에서 옮겨다 실은 앞뜰의 산죽이 저도 깨어나 오스스 몸을 떠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다. 자연의 변화에 대해 그 어떤 가지 판단이나 주관의 개입도 없이 조용히 바라만 보고, 그것을 그대로 시로 옮겼다.

"숲에 가려서 달은 조금밖에/ 보이지 않았다/ 한참이나 움직이지 않고 서서/ 달을 보았다" ('저녁에' 중)

표성홍 시인은 발문에서 "적은 스님은 인생살이의 고달픔과 육신을 벗어 던지고 바람처럼 떠도는 그야말로 운수남자(雲水衲子) 그 자체"라며 "달과 하나가 된 시인이 무기술(無技巧)의 기교로 쓴 시를 통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공감대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저녁에
적은 스님 시집 | 홍익21 | 1만원

마음 밝을 때 행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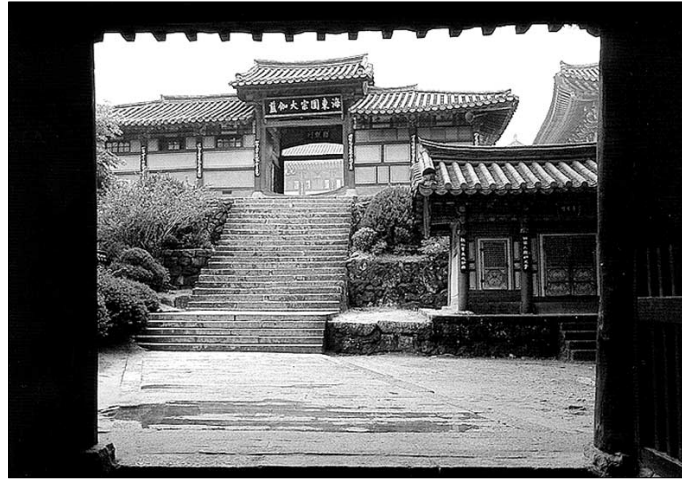
"쾌활하게 살아. 크게 웃고 살아. 우울해지면 웃음을 터뜨리자. 마음이 밝을 때 건강과 행운이 오는 법이다."

<생명은 밝은 데서 성장한다>는 도심포교의 선두주자로 평가받는 광덕 스님(前 불광사 법주)의 글에서 간단히 읽을 수 있는 명상언어를 가려 담은 책이다. '밝게 웃는 데서 성취가 온다' '용모는 투명한 포장지다' 등의 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스님은 '항상 밝게 웃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라'고 강조한다. 우리 모두가 나아하고 비무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창조력을 지닌 불성의 구현자이므로 생동감 넘치는 삶을 일구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을 엮은 불광사 주지 지홍 스님은 "광덕 스님께서는 생명을 반드시 밝은 데서 성장하고,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빛의 생명임을 누누이 강조했다"며 "스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밝아지고 빛이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고 출간의의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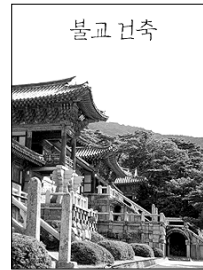
생명은 밝은 데서 성장한다
광덕 스님 지음 | 불광출판사 | 8천원



불교문화재에 담긴 아름다운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진은 '깃바위 부처님'으로 불리는 팔공산 관봉 석조약사불좌상(왼쪽)과 함천 해인사 불화문에서 해탈문으로 향하는 길의 모습.

아는 만큼 보이는 아름다움

풍부한 사진과 깊이있는 해설 담은 '휴대용 성보사전'



불교건축 김봉렬 지음 | 숲 | 2만5천원
석불·마애불 최성은 지음 | 예경 | 1만8천원

석굴암 벽면의 불상은 어떤 순서로 모셔져 있는 걸까? 부석사 석단은 정토신앙을 따른 것일까 아니면 화엄신앙에 따라 조성된 것일까?

사찰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불교문화유산들을 마주할 기회가 많지만 정작 그 속에 담긴 뜻과 아름다움을 찾아내 감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출간된 <불교건축>과 <석불·마애불>은 풍부한 사진과 설명으로 불교문화유산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휴대용 성보사전'이다. 책을 펴두고 장엄한 불교미술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부처님 생전에는 부처님이 머무는 곳이면 어디나 사원이 됐지만, 수행자가 늘고 승단이

조직되자 일정한 신앙의 장소가 필요해졌다. 이처럼 불자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불교건축은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돼 왔다.

<불교건축>은 도서출판 숲이 펴내는 '한국 미술의 재발견' 시리즈 중 열 한 번째 책으로, 사찰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인 불교건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건축평론가 김봉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가 집필을 맡았다.

책은 불교건축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각 사찰별 건축물이 갖는 특징을 소개하는 순으로 구성돼있다. 시대와 지형, 건축을 맡은 사람의 개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불교건축의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 개별 건축물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1장 '불교건축의 재발견'에서는 인도에서 성립된 불교건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어떻게 성립·전개되어 왔으며, 건축물이 갖는 교리적·기능적인 의미는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2장 '한국 불교건축의 이해'에서는 고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찰건축의 흐름을 한눈에 펴 수 있도록 주요 사찰 스텐 네 곳을 차례로 소개한다. 지은이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극락세계는 바다에 빛나는 유리로 만들어졌다'는 결정말씀에 따라 부석사 무량수전 바닥에는 유약을 바른 청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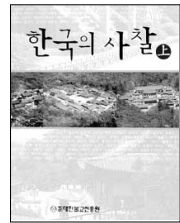
리 전돌이 깔려있고, 순천 선암사는 모양이 불규칙한 연못을 배치함으로써 사찰의 영역을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 전체가 하나의 '노천 전시장'을 이루고 있는 경주 남산에서는 시선을 돌리는 곳과마다 정성스레 조각된 석불이나 마애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시간의 풍화 속에서 훼손되거나 도난당하는 목불이나 금동불과 달리 대부분의 석불과 마애불은 지금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더욱 높다.

<석불·마애불>은 이처럼 '돌 속에서 나뉜 부처님'인 석불과 마애불의 세계로 안내하는 책이다. 불상전문가이자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이기도 한 최성은 교수(덕성여대 미술사학과)가 우리 산천 곳곳에 새겨진 석불을 찾아 나섰다. 불교가 전래된 시기의 초기 불상 양식을 반영하는 삼국시대 석불부터 민간신앙적 냄새가 물씬 나는 조선시대 후기 마애불까지, 긴 세월동안 우리나라 돌조각 작품을 대표하는 석불과 마애불을 보여준다.

최 교수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불교신앙의 영향을 받아 그 제작양식과 분포에서 다양함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석불과 마애불은 동아시아 석조조각의 한 정점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한국의 사찰
대한불교진흥원 펴냄
전2권 | 각권 1만8천원

사찰·불교문화재 답사안내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 사찰을 찾거나 답사를 갈 때면 늘 "한눈에 사찰의 역사와 문화재를 볼 수 있는 책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은 이러한 고민을 하는 불자들을 위해 전국의 주요 사찰과 지역별 불교문화재를 조사·정리한 답사안내서 <한국의 사찰> 상·하권을 펴냈다. 김형우(문화재청 문화재 감정위원) 씨와 신대현(사찰문

화연구원 상임연구원)·안병인(대한불교진흥원 출판부) 씨가 3년여 간에 걸쳐 전국의 사찰과 절터 100여 곳을 현지 조사하고 그 자료를 정리한 이 책에는 사찰의 위치와 역사, 현황, 사찰조각 주요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가득 담겨 있다.

상권에서는 경기도 일대와 강원도, 전라도 지역의 사찰을, 하권에서는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의 사찰을 소개한다. 사진과 가람배치도, 약도 등을 함께 담아 여행이나 답사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여수령 기자

새로운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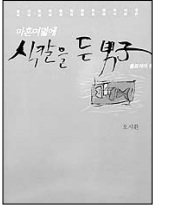
■ <불교의 알음알이>(우봉 스님 지음, 다다아트, 1만2천원)=기본적인 불교교리 이해와 불자들의 수행을 돕기 위한 불교 입문서. 2002년에 발간된 초판에 이은 개정판으로, 우봉 스님이 방대한 불교 관련 자료를 쉽고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엮었다. '입문편'에서는 불교 기본 교리를, '시행편'에서는 수행법과 불교의식, 불교미술 등에 대해 설명한다. 부록에는 법회 순서와 법회에 필요한 찬불가, 반야심경, 발원문, 사찰서원 등을 담았다.



■ <사람이 그림이다>(승현 스님 지음, 수수꽃다리, 9천원)="마음을 비움수록 빛나는 더욱 붉게 빛나고, 흠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은 풀빛처럼 투명해진다"는 것을 믿는다." <고요는 휘어저본 적이 없다가 펴낸 시인 승현 스님(해진선원장)이 전하는 수행 에세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사찰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만난 불자들의 사연과 수행과 문화의 길에서 느낀 고된 등을 풀어 놓았다.



■ <미혼 여덟이 식칼을 든 남자>(오시환 지음, 새로운사람들, 9천5백원)=20여년 동안 광고인으로 살아온 지은이가 미혼 여덟의 나이에 '식칼'을 들고 새로운 인생을 찾아 나섰다. 미국 플로리다와 뉴욕의 일식집에서 요리를 배우며 써내려간 일기를 통해 '맛의 선지식(禪知識)'을 찾아 나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지은이는 현재 서울 계동에서 바다요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책방 역시아름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禪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름
2	오체부처	한경혜	반디미디어
3	물속을 걸어가는 달	김진태	학고재
4	말씀 부처가 보이신 길	정화스님	이른 아침
5	영가천도	우봉스님	효림
6	이관사판 회암경	성범스님	정신세계원
7	허버드에서 만난 부처	소운스님	도솔
8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도법스님	아름다운인연
9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김성철	불교시대사
10	서장	전재강	운주사

도서 안내: (02) 737-0695

바로보인 환단고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파헤치다!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와 과학도 밝혀놓는 환단고기
우주탄생의 비밀을 밝혀놓은 환단고기
전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문제현 선사님
께서 명안중사의 인목으로 바로보았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우공(愚公)이 산을 옮기듯 임현담은 히말라야를 한국으로 옮기다

인도는 온갖 것을 담은 거대한 연못, 히말라야는 거기에 뿌리를 내린 연꽃이다.
눈 위에 핀 연꽃, 설련(雪蓮)이다.
해인사와 봉도사가 한국인의 수행도량이라면
히말라야는 범성(凡聖)이 뒤섞인 일체 생령의 귀의처, 설련(雪蓮)도량이다.
그러기에 누구나 저 장엄한 설련의 모습을 한 번 바라보거나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곧 깨달음에 든다.
설련(雪蓮)도량이 깊고 넓고 높은 힘 때문이다.
여기 히말라야 시리즈인 설련도량 총서가 우리 한국인 모두를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산은 신(神)이 머무는 곳이 아니다. 산 전체가 신이다.
산은 명상하는 곳이 아니다. 산 전체가 명상이다.
와서 보라!

1. 히말라야 있거나 혹은 없거나—히말라야의 내침반
교, 사진 일련담 | 368쪽 | 윌리엄 | 값 15,000원
이 책은 히말라야 감성법을 담은 총론이다. 우리가 거대한 설산에서 무엇을 보고 느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나침반에 의지하여 갈 길을 찾듯, 히말라야 순례객들에게 이 책은 나침반이자 예의범절의 교과서다.
2. 시킴 히말라야—히말라야의 진주
교, 사진 일련담 | 411쪽 | 윌리엄 | 값 15,000원
히말라야의 진주라고 칭송되는 강철히의 시킴은 우리 오대산의 할아버지 산이다. 한국 강원도의 오대산, 중국 산서성의 오대산. 그 시작이 바로 시킴의 강철히이다. 저자가 자료를 찾고 직접 답사하여 글과 사진으로 밝혀낸 기록을 최초로 공개한다.
3. 가르왈 히말라야(근간) 이하 점차적으로 간행 예정임
4. 네팔 히말라야(상) 5. 네팔 히말라야(하) 6. 아삼 히말라야 7. 부탄 히말라야
8. 편잡 히말라야(상) 9. 편잡 히말라야(하) 10. 티베트 히말라야